



제 2 회 국제축산기술전시회 지상견학

홍 보 부

◇…지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본 동경도 清海 國際見本市會場에서는 제2회 국제축산기술 전시회(VIV-ASIA '89)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는 14개 국가에서 200여개의 회사가 축산 관계 기자재 등을 출품했는데, 4일간 연인원 2만명이 관람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전시회에 출품된 양돈관계 기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곁들여 간략히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2회체인 국제축산기술 전시회에는 일본의 국내 44개사와 외국의 88개사 등 132개사에서 출품을 했으며, 각사의 대리점 참가까지 합하면 200개사가 넘는 회사에서 출품을 했다. 이중 양돈 관련 부분은 57개사에서 출품을 했으며, 그 전시품목을 분류해 보면 표1과 같다.

제1회 때와 비교하면 전체 출품전시품목수는 많았으나 양돈관련 품목은 1회 때와 대동소이하였다고 한다. 품목별로는 급이기, 급수기, 환경관리에 관한 기기(체계, 단열, 팬 등) 컴퓨터체계 등의 전시가 1회 때보다 많았으나 소독관계의 전시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표1> 전시품 내용

품 목	종류
돈사관련(돈사체계, 상재, 분만책, 단열재 등)	18
급이, 급수관련(급이기, 급수기, 사료혼합기 등)	28
환경관리관련(난방기, 환기장치, 카텐 등)	23
소독관련(고압세척기, 세부발생장치 등)	5
분뇨 처리관련	3
컴퓨터 관리	7
상사, 종축관련	7
기타(약품, 정보출판, 수의기구 등)	13

주) 1개사에서 수종류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은 제품마다 계산하였음.

이번에 전시된 내용을 보면, 번식돈에 관련된 전시로서는 분만책 및 컴퓨터에 의한 번식돈의 개체관리체계 이외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반면, 비육돈에 관련된 전시품이 많아지고 최근에 화재가 되고 있는 웹드취-다리깃드 휘당시스템의 전시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돈사환경이 생산성 향상에 큰 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단열, 환기, 난방, 카텐 등의 기자재와 온도검사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들의 기기를 조정하는 방식의 전시도 눈에 띄었다.

이외의 전시품으로는 일본에서는 금년부터 정액의 수입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종축관련 회사에서 많은 참여를 하였다.

또한, 해외로부터 많은 출품전시회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화란외국무역국, 농림수산성, 해외경제국, 독일연방공화국 조직운영, 영국무역산업성, 런던상공회의소, 불란서조직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창구로 되어 출품한 것이 있었고, 이들 나라들이 일본시장에의 진출에 관심체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금후 기술의 진보로 편리한 것, 유효한 것이 더욱 더 개발되어 값도 저렴해져서 경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끝으로 양돈에 관한 전시품에 대해 간략하나마 설명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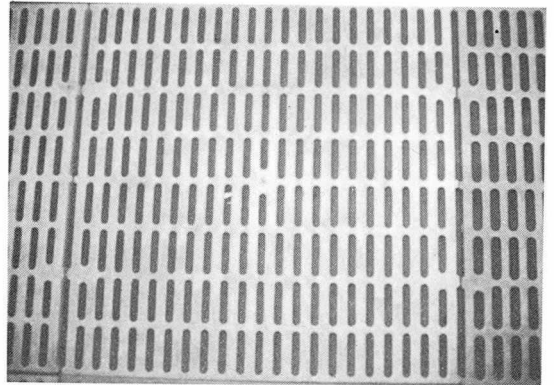
1. 상 재(床材)

상재의 재질은 크게 나누어 콘크리트상,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상, 슈퍼코드, 그린매트, 드라이앵글상, 폴리프로피렌상 등이 있다.

플라스틱을 피복한 상(床)은 돼지똥이 떨어지는데(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며, 보온성(돼지가 잘 때의 찬 기운이 적음)과 지체 손상이 문제가 적으나, 발굽의 파멸이 적어 길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폴리프로피렌상은 4각(四角)형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을 떼어내는데 쉽고 재질인 폴리프로피렌은 세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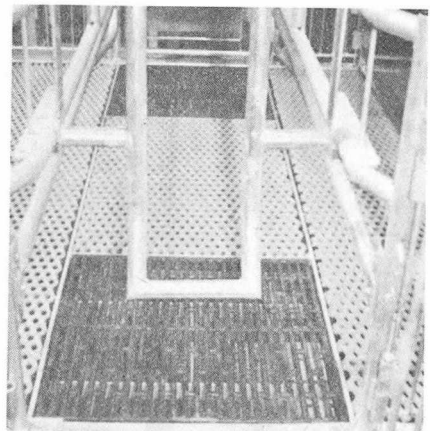
생식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보온성은 프라스티피복상과 같으며, 돼지의 체열을 빼앗지 않는다.



드라이앵글상은 똥이 떨어지는 점에서는(상 밑으로) 다른 상에 비하여 좋으나 보온성에 있어서는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하며, 포유자돈에 사용시에는 자는 곳에 매트 등을 상면에 깔아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분만돈방에 있어서 모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드라이앵글상에 홈을 낸 것이 있었다.

분만돈방, 육성돈방에서는 플라스틱의 피복, 폴리프로피렌, 드라이앵글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비육돈방에서는 콘크리트상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분만책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만책의 출품이 있었다. 특히, 종래의 것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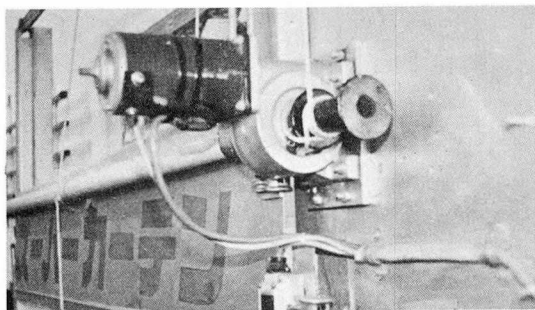
구라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방형(斜方形)의 분만책이 전시되었으며, 이는 포육자돈이 자는 곳을 넓게 해 주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드라이앵글상을 상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돈방에서는 모든의 미끄러짐을 막도록 홈을 내고 있었으며, 또 이상에는 포육자돈의 침상밑에 온탕을 지나가게 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피복상을 전면(全面)에 상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분만사에서는 일부(모든의 머리와 궁둥이 부분)에 주물로 된 상을 사용하여 똥이 잘 끊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그부분을 조립(붙였다 떼었다)하기 쉽도록 하며 똥이 상밑으로 잘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분만책에 있어서는 책의 폭, 궁둥이 닿는 부분의 모양 등 자잘구레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연구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3. 커-텐



이번 전시회에는 커텐 부분에 새로운 것이 많았다. 컴퓨터와 온도감사기를 사용한 자동온도 제어장치를 갖고 적정온도에 장치해 두면 자동적으로 커텐이 상하로 오르내려 온도의 조절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방돈사에서 어떻게 사내환경을 양호하게 보전하고 비육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또 온도 이외에도 바람의 강도에 의해 커텐을 제어한다면, 비가 쳐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커텐에 비가 맞으면 온도감사기가 작동되어 커텐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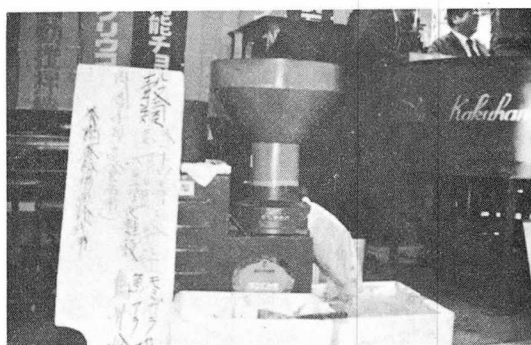
려오도록 연구되어 있는 것, 석양별을 막기 위해 태양 빛의 강도를 감지하여 커텐이 내려오도록 한 것, 또 그들을 조합하여 커텐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커텐체계가 전시되어 있었다.

4. 보온기구(가스 히-터)



보온기구는 보온매트, 전열히터의 전시는 적었다. 가스히터는 몇 개의 회사에서 전시가 있었다. 출품사마다의 제품에 각기 구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가스히터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성을 제일로 생각해야 한다. 가스히터의 안정성 자체도 돈방의 구조, 설치하는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사료혼합기



큰통형의 혼합기가 두 개의 회사에서 출품되었다. 혼합방법은 종래의 것과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료를 꺼내는 곳에 상당한 연구가 되어 있었다. 또 먼지를 모으는 장치를 붙여 사용자를 먼지로부터 막아 주는 것도 보였다. **兼談**